



水邊情談

우리는 과학기술문명이 발달할 수록 자연을 더욱 그리워하고, 편리한 도시생활을 하면서도 휴내음 나는 시골 마을을 꿈꾸며 산다. 쉬는 날이 돌아오면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개나리 진달래가 핀 산천을 찾아 나들이 갈 계획을 세우고, 휴가를 맞으면 콘크리트로 지어진 빌딩과 아파트를 벗어나 '산쟁이 알을 품고 뼈꾸기 제철에 울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고향을 찾아가거나 산이나 바닷가로 놀러간다. 이것은 분명 편리하고 매끈하게 닦인 이스팔

아가려 하고, 친근하게 지내려고 하는 자연은 무엇일까. 아마도 그것은 물이 아닐까 생각한다. 물은 수, 화, 목, 금, 토의 오행(五行) 가운데 첫번째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고의 시조시인인 고산 윤선도의 <오우가(五友歌)> 중에서도 제일 먼저 찬미되고 있는 자연물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자연을 정말 깊이 사랑하고 아름다운 가락으로 노래함으로써 한글시가미학의 최고 수준을 보여준 윤선도가 가장 가까이 지낸 벗이 물, 바위, 소나무, 대나무, 달 이렇게 다섯인데 그 중에서 고산은 물의 미덕을 제일 먼저 노래하고 있다. 국어 시간에 배운 시를 다시 한번 읽어 보자.

물의 미덕

트 문명을 떠나 굳이 먼지 풀풀 날리는 시골길을 찾아간다는 의미에서 하나의 아이러니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비록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어느 정도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 있지만, 그 반대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치열한 경쟁 속에 살면서 그만큼 우리의 심신이 지쳐있으며 원초적으로 우리 인간은 자연의 품에 안기어 쉬고 싶은 본능이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고 하는지 모른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이 늘 찾

“구름빗치 조타하나
검기를 자로한다
바람소리 맑다하나
그칠 적이 하노매라
조코도 그칠 뉘 업기는
물뿐인가 하노라.”

고산은 위의 시에서 물이 구름이나 바람처럼 번덕을 부리지 않고 늘 깨끗하고 쉽게 없이 흘러가는 미덕을 지니고 있음을 찬미하고 있다. 물의 속성이 어두컴컴하거나 수시로 번덕을 부리는 구름과는 달리 맑고 깨끗한 청정한 면모를 지녔으며, 밤낮으로 쉬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 늘 생동하고 한결같은 믿음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김 영
(인하대 국문학과 교수)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으로, 인간을 비롯한 모든 동물들은 물을 마셔야만 살수 있으며 들의 풀이나 산의 나무도 물이 없으면 말라죽게 마련이다. 그래서 물을 일러 ‘생명수(生命水)’라 하고, 우리 인간들의 집자리도 반드시 산을 등지고 앞에 시내나 강을 끼고 있는 곳에 터를 잡는다. 인류문명의 발상지가 다 강변에 형성되었음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며, 《서경》에서도 ‘수생목(水生木)’이라 하여 물이 자연의 근원임을 밝히고 있다. 이와같이 물은 메마른 대지를 적셔 생명을 움트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먼지와 때를 씻겨 주며, 인간이 만들어낸 온갖 공해를 가라 앉혀 준다.

고산이 노래하였듯이 물은 원래 이러한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청정한 본성을 지녔으면서도 혼

자 고고한 채로 있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낮은 곳으로 흘러, 자신을 희생하면서 남을 정화시켜 주는 역할을 자청한다. 물은 이와같이 낮은 데로 흘러가려 하는 겸손의 미덕을 가지고 있다. 물은 우리 인간들처럼 높은 자리를 탐내지 않고 남들을 섬기는 낮은 자리에 처하려고 하며, 낮은 곳을 찾아 흘러가면서 돌을 만나면 그것을 피해 지나가고 언덕을 만나면 돌아가며 구덩이를 만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곳을 가득 채워준 뒤에 떠나는 너그러움을 갖고 있다. 또 물은 한 곳에 머물러 있기를 싫어한다. 물은 어떤 지위나 성과에 연연해 하거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기회만 있으면 낮은 곳으로 움직이려는 자기갱신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물은 끊임없이 흘러,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만

물을 자라게 하면서도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지 않으며, 세상을 깨끗하게 하면서도 그 공을 내세우지 않는다. 늘 낮은 곳을 향하며, 자기의 형태를 고집하지 않고 온전히 자기를 비워 다양각색의 그릇에 그것들의 뜻대로 편안히 담긴다.

물은 이렇게 아름다운 덕성을 가지고 있어서, 노자는 《도덕경》에서 물의 미덕을 “상선약수(上善若水)”라고 칭송한 바 있다.

“가장 착한 것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잘 이롭게 하면서도 남과 다투지 않고, 못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처한다. 그러기에 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上善若水，水善利萬物而不爭，處衆人之所惡，故幾於道) ☸